

08

August 2025  
vol. 289

#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For Weddings



the  
*Guest*



VACHERON CONSTANTIN  
GENÈVE



# Contents

AUGUST 2025 / ISSUE.289

**06\_SELECTION 1**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신부를 위한 선택리스트.

**08\_SELECTION 2** 가장 빛나는 순간을 위한 신랑의 준비. 클래식한 스트부터 품격 있는 액세서리까지, 특별한 날을 완성하는 그루밍 선택.

**10\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12\_JETSETTER'S GUIDE** 햇살과 함께 즐기는 여행지와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을 위한 패션과 액세서리 선택.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그루밍 선택.

**14\_ARTIST IN FOCUS** 각자의 '꿈'에 참여하는 미술가たち. 그들의 작품과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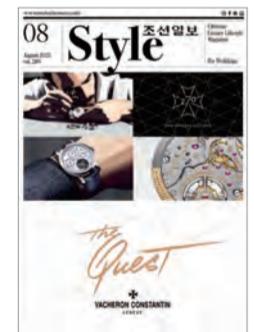
**16\_MONUMENTAL PIECES** 올해 바쉐론 콘스탄틴은 설립 27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해 워치스 & 원더스에서 메종의 아이코닉한 트레이디셔널과 패트리모니 컬렉션의 신제품 위치를 공개했다.



22



12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컬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작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기쁘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올해 설립 270주년을 맞이한 스위스 럭셔리 워치메이킹 메종 바쉐론 콘스탄틴은 워치메이킹 역사와 함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월에는 서울 청담동에 '메종 1755 서울'로 명명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며 이를 기념하기도 했다. 앞으로 한국에서 선보일 하이엔드 워치와 서비스가 기대된다. 문의 1877-4306



#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김하연 stylechosun.khy@gmail.com, 윤수경 yjk@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신정임 sji@chosun.com  
디자인 나는김파니 교열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jh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인경 분해·제판 덕일 인쇄 타리티피에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06

26



06



# BVLGARI

ROMA 1884

DIVAS' DREAM COLLECTION



# GRAFF



# Qeelin

신세계 백화점 본점 신관 2F

qeelin.com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amp; 주목할 만한 소식들

# INSIGHT

차 한잔하실래요?

비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홀로 즐기는 티 한잔의 여유.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비알레띠 모카 익스플루시브 그린 에스프레소 3샷 용량의 파스텔 그린 컬러 모카 포트 8만원 문의 1533-0918  
비사커피 밀크 초콜릿 커버 커피 빙 퍼ocket 사이즈와 리본 디테일의 조합이 선물용으로 제격. 150g 2만3천원. 문의 02-2118-6932  
포트넘 앤 메이슨 카멜리아 티 포 원 티팟 카멜리아 패턴의 인용 티팟 미정. 랄프 로렌 흉 탈프스 커피 컵 세트 그린 & 화이트 컬러의 에스프레소 컵, 컵 받침 세트 3만9천원. 문의 02-6004-0220  
포트넘 앤 메이슨 플라워 티 인퓨저 간편하게 티를 우려내는 티웨어 5만원. 문의 02-310-1548 포토그래퍼 윤지영 에디터 신정임

## Forever Beauty

최고의 품질과 제작 노하우로 사랑받는 그라프 다이아몬드가 이번 새로운 캠페인에서 다시 한번 다이아몬드를 조명한다. 주인공은 트와이스 사나. 캠페인에서 그녀는 버터플라이, 틸다의 보우 등 하우스의 아름다운 하이 주얼리 및 파인 주얼리 컬렉션을 착용하고 파리를 누비며 그라프 다이아몬드의 로맨틱하고 우아한 순간을 전한다. 특히 그녀가 착용한 네크리스는 총 15.93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아름다움을 배가했다.

이외에도 이번 캠페인을 통해 그녀가 착용한 티아라, 이어링, 링과 브레이슬릿까지, 그라프의 장인 정신을 가득 담은 컬렉션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2-2256-6810



## Glass-Cooled August

공간의 분위기를 손쉽게 전환하고 싶다면, 무헤(MUHE)가 선보이는 화병과 오브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유례한 곡선에 투명하고 시원한 컬러를 부여한 주(JU)의 'Aqua Glassware'는 어려운 형태의 꽃들은 깊각적인 꽃꽂이가 가능하며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날에 청량한 기운을 불어넣어준다. 특히 난과 프리저브드 플라워와 함께라면 사계절 내내 함께할 수 있는 오브제 역할까지 톡톡히 해낼 것이다. 8월의 공간을 시원한 미감으로 채우고 싶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문의 www.mu-he.com



## 아트 디아닝의 미학, 카비네트×소피텔 앤배서더 서울

오감을 일깨우는 예술과 미식의 조화로 무더위를 잊게 해줄 여름 프로젝트가 기대되고 있다. 오는 8월 말까지 소피텔 앤배서더 서울에서 조경과 공예의 경계를 넘나드는 과정을 직기의 전시와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세프의 일식 메뉴가 함께하는 (SAVOR THE ART)가 그 주인공이다. 아트 협업 플랫폼인 카비네트(Kabinett)와 소피텔 앤배서더 서울이 결치는 아트×미식 프로젝트의 두 번째 챕터로 처음에는 프렌치 레스토랑, 이번에는 모던 일식 가스트로노미 미오(MIO)를 이끄는 정창엽 세프와 손잡았다. 나무와 금속 등의 재료를 독자적인 유기적 조형 언어로 바꾸려는 괴철한 작가의 산작을 포함한 아트 페니처, 평면 작업, 오브제 등 9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정창엽 세프는 그 작가의 작업이 담고 있는 독특한 예술적 리듬과 에너지를 자신만의 해석을 거쳐 섬세한 일식 요리로 풀어낸다. 전시는 소피텔 앤배서더 서울 1층 웰컴 로비와 2층 포이어, 미오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8월 1일 진행된 오프닝 행사는 작가의 아티스트 토크, 세프의 메뉴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12코스 디너가 함께하는 프리미엄 아트 디아닝도 마련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념해 카비네트에서는 과학인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축소시간 한정으로 첫날 반값 대여권을 1주 명에게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글 고성연 문의 hello@artkabinet.net 02-2088-3503

## Watches & Jewelry • 이달에 주목해야 할 워치 & 주얼리 셀렉션



**A color of happiness** 컬러 세라믹의 대가 위블로가 올해 또 한번 다채로운 색감의 위치들을 공개했다. 그중 독특한 컬러감을 자랑하는 페트를 블루 컬러 빙원 원 클릭 33mm는 위블로가 해석한 페트를 블루 컬러 세라믹으로 깊은 베이지색과 푸른은 숲의 고요함을 떠올리게 해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미를 준다. 문의 02-540-1366



**Crush on You** 이번 시즌 사설 코코 크러쉬는 아이코닉한 컬팅 패턴의 교차면에만 다이아몬드를 장식해 패턴의 리듬과 형태에 주목했다. 특히 네크리스는 단면에 다이아몬드를 파به 세팅하고 중앙에 다이아몬드 하트를 포인트로 장식해 유행에 구애 받지 않은 디자인이 특징이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Magical Horologe** 시간 관측에서 핵심이 되는 천체에 대한 도전 정신으로 매번 새로운 웨스트를 달성해나가는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메종 바쉐론 콘스탄틴. 이번에는 별자리로 푸른색을 기반으로 디자인한 별자리 테마의 블루로, 깊은 밤하늘의 푸른색을 가득 담고 12개의 별자리 모양을 새긴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문의 1877-4306



**New Iconic** 포멜로토가 이코니카 컬렉션에 젠스톤의 화려한 컬러 조합을 엿볼 수 있는 주얼리를 추가했다. 이번 컬렉션을 가장 잘 대변하는 주얼리로 각테일 왕을 꼽을 수 있는데 자수정과 루비, 핑크와 블루 사파이어, 블루 지르콘 등 다채로운 젠스톤을 로즈 골드 위에 정교하게 세팅해 마치 하나님의 작품과도 같은 실루엣을 뽐낸다. 가격 미정. 문의 02-3479-1801



**LANVIN**  
COLLECTION



새로움을 거듭 입히는 로테르담의 문화 예술 풍경

# 잿더미가 된 무역항에서 창조적 혁신의 터전으로

네덜란드 제2의 도시인 로테르담은 유럽 최대의 무역항으로 명성이 높지만 아무래도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그림자에 가려진 듯한 느낌이 있다. 암스테르담은 문화와 금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빈센트 반 고흐'와 '안네 프랑크'라는 주요 키워드만으로도 관광도시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어서다. 그런데 알고 보면 로테르담의 매력도 나날이 자라나고 있다. 건축 메카로 불리는 이 도시에는 최근 들어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매혹적인 공간과 내실 있는 콘텐츠가 조화롭게 생겨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물론 두 도시를 놓고 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사실 도심을 기준으로 자동차로 1시간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서로 가깝고, 둘 다 기차 노선도 발달된 터라 자국 내에서도 그렇고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접경 국가들과의 이동도 편리한 편이다. 실제로 필자가 암스테르담 공항(in)과 파리행 기차(out)의 동선 사이에 머무른 로테르담의 영감 넘치는 문화 예술 풍경을 소개한다.



## 폐허에서 현대 건축의 경연장이 되다

중세의 작은 어촌으로 출발해 '유럽으로 가는 관문'으로 불릴 만큼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성장한 로테르담. 특히 산업혁명에 힘입어 증기선, 전자동 크레인, 마스강 양쪽을 이어주는 철교 등이 등장하면서 상인의 나라' 네덜란에서도 이 항구도시의 존재감은 무역무역 커가고 있었다. 하지만 양차 세계대전의 막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한 20세기 초반, 포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도시의 운명이 위태로워졌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기까스로 중립을 지키며 버텼지만 세계 대공황의 충격으로 경제에 타격을 입었고 이를 간신히 극복해내던 차례 이번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희생양이 됐다. 독일군은 선전포고도 없이 유럽 물류의 중심지였던 로테르담을 향해 침략을 날렸다. 그 결과는 1940년 5월 14일 로테르담 블리즈(Rotterdam Blitz)라 불리는 낙타 공군의 폭격으로, 이로 인해 도시의 주요 항구 시설과 선박은 물론 주택·학교 등 시민의 일상을 떠받치는 기번까지 무참히 파괴되어버렸다. 전후에 대대적인 재건 작업을 시작했는데, 민·관의 창조적 협업으로 다행히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이 쏟아졌고, 결과적으로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현대적인 모습을 자닌 건축의 도시'로 거듭나게 됐다.

## 포격과 화마에 휩싸였던 창고의 부활

불행을 딛고 스스로 건축의 실험 무대가 된 로테르담의 도전적 기조는 지금도 이어진다. 특히 도시의 문화예술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불어넣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눈에 띠는데, 필자가 지난 5월 중순 개관 당시 초청받았던 로테르담의 새로운 미술관 페닉스(Fenix)도 주목할 만한 창조적 재생 사례다. 마스강 남쪽의 벤데크루벨 건축 사무소와 웨스트8의 협업체 디자

1 1925년에 샌프란시스코 웨어하우스 앞에 장벽에 있는 배. Courtesy of Rotterdam City Archives 2 로테르담의 새 랜드크로 부각 중인 페닉스(Fenix). Photo © Iwan Baan 3 30대 중반의 나이로 페닉스 초대 관장은 된 아너 크레머스(Anne Kremers). Photo by 고성연 4 프랑스 작가 JR의 작품 'Giants, Kikito and the Border Patrol'(2017). 미국-멕시코 국경을 가르는 담을 바라보는 아이의 모습을 담은 대형 사진. Collection Fen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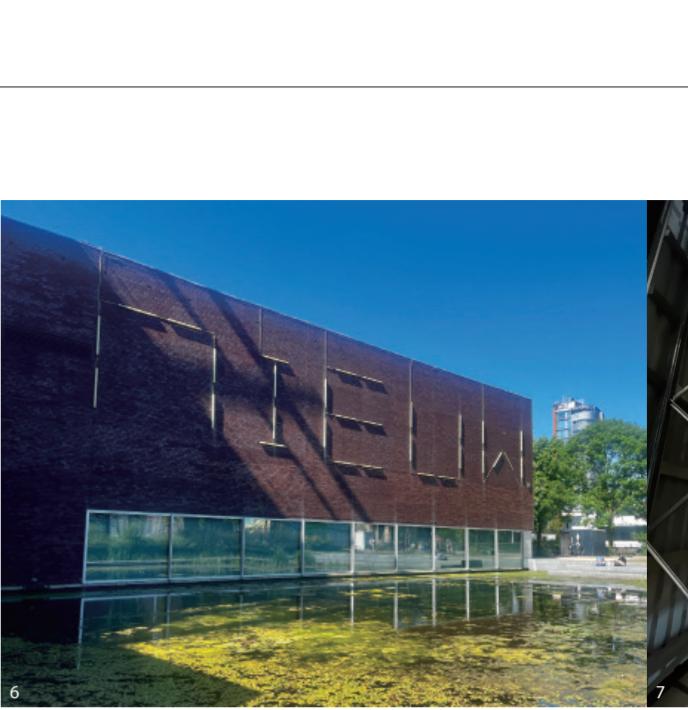
성장에서 큰 지분을 차지하는 유서 깊은 건물이 있는데, 1920년 초 지은 샌프란시스코 웨어하우스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창고였는데, 유럽과 미국을 잇는 선박 라인을 꾸렸던 해운 회사 HAL(홀랜드 아메리카 라인)의 플랫폼으로 사용됐다. 이 역사적인 창고는 나치군의 공습과 수년 뒤의 화재로 심각하게 훼손됐지만 시 정부 차원에서 복구에 나서면서 살아남은 골격을 살려 '불사조'를 뜻하는 라틴어 페닉스(Fenix)라는 이름을 붙인 건물로 재탄생시켰다(페닉스 I와 II). 그리고 세월이 흘러 페닉스 II 창고는 올봄 1백70여 개국의 다국적 시민을 품은 이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에 어울리는 '이주(migration)'라는 키워드를 대주제로 삼은 미술관으로 대중 앞에 새롭게 선보였다. 마스강 남쪽 강



둑을 따라 360m(파사드 길이)로 기다랗게 늘어선 이 현대미술관은 건물 상단에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출된 '토네이도'가 단연 돋보인다. 이 나선형 구조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루프톱에 올라가면 로테르담의 도시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또 전시장 안에서도 커다란 창들이 강 건너편의 건물 풍경으로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끄는데, 그중에는 과거 HAL의 사무 본부였던 호텔 뉴욕(Hotel New York)도 있다. 20세기 초만 해도 그 앞에서 수많은 이주자가 오가는 배가 출항했다는 호텔 뉴욕은 지금은 '클래식 빙티지'를 상징하는 진짜 호텔로 운영되고 있다. '전시장 내 큰 청들이 마스강, 부두, 호텔 뉴욕 등의 전망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향하게 해주기에 페닉스는 도시와의 연결 고리를 지니게 됩니다. 관람객들은 우리가 전시를 통해 전하는 스토리텔링의 배경을 늘 상기할 수 있게 되죠.' 아너 크레머스(Anne Kremers) 페닉스 초대 관장의 설명처럼 현재 페닉스의 소장품 기획전에 걸려 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사진 옆 창으로 보이는 호텔 뉴욕의 자태를 가만히 응시해보니, 마치 그가 미국행을 위해 배에 몸을 실은 1921년의 장면이 겹치는 듯 하다(나치의 유대인 탄압을 피해 1933년 전역 망명한다). 어쩌면 '이주'라는 큰 주제 아래 포옹과 자유를 얘기하는 이 미술관은 역사적인 아픔을 지난 나라를 무대로 하기에 더 의미 있을지도 모르겠다(네덜란드는 스스로 유대인 박해에 나선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대인의 피해 비율이 가장 높았던 나라다).

## 의미 있는 재생 프로젝트를 이끄는 후원과 협업

페닉스의 탄생은 단순한 창고의 창조적 부활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문화적 재생 프로젝트의 일부이기도 하다. 로테르담은 마스강을 경계로 경제적으로 활발한 북쪽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쪽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하얀 날개 모양의 에라스무스 다리를 완공하면서(1996년) 도시의 양극화를 누그러뜨리는 여러 시도가 이뤄져왔다. 페닉스가 자리한 카렌데흐트역 역시 과거 흥등기였던 동네이자 유럽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차이나타운이 자리한 지역으로 '재생'과 '활성화'의 대상이었다. 페닉스 설계를 맡은 MAD 아키텍처의 미안송은 마침 중국 출신으로 미국 LA 루카스 유지엄의 건축가로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토마스 헤더웨이가 이끄는 서울 노들섬 프로젝트에도 발을 담글 예정이라고), "유럽에서의 첫 문화 예술에 건축 프로젝



Ma Yansong  
Architecture And Emotion  
Architectuur en emotie

트라 강회가 남다르다"고 했다. 개관전에서 선보인 1백 50점이 넘는 현대미술 작품, 글로벌 스케일의 건축과 '문화적 혼종'의 시대에 맞는 주제… 게다가 시민들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인 '플레이(Plain)' 운영도 한다. 언뜻 봐도 규모가 상당하고 공공의 지향점을 지니고 있지만, 로테르담의 상당수 프로젝트가 그렇듯 페닉스도 민간 주도의 재생 사례다. 그 배경에는 HAL에서 퍼峁된 금융 자주회사를 소유한 판 데르 보름(Van der Vorm) 가문(네덜란드에서 하이네켄 집안 다음으로 부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에서 후원하는 드론 앤 다트(Droom en Daad) 재단이 있는데, 암스테르담의 국립 미술관 레이크스 유지엄 출신인 빌 페이비스(Wim Pijbes)가 수장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 예술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이 재단의 최근 행보는 매우 활발하다. 호텔 뉴욕과 멀지 않은 동네에 위치한 국립사진미술관(1989년 설립)이 역사적인 부두가 있는 레인하번 지역의 또 다른 창고를 개조한 8층짜리 건물에 올 하반기쯤 새롭게 동지를 틀 예정인데, 이 역시 드롬 앤 디트 재단의 기부로 이뤄진다. 또 MAD 아키텍처가 또다시 설계를 맡은 공연 센터 '단하우스(Danhuis)'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 점진적 변화로 풍부해진 도시의 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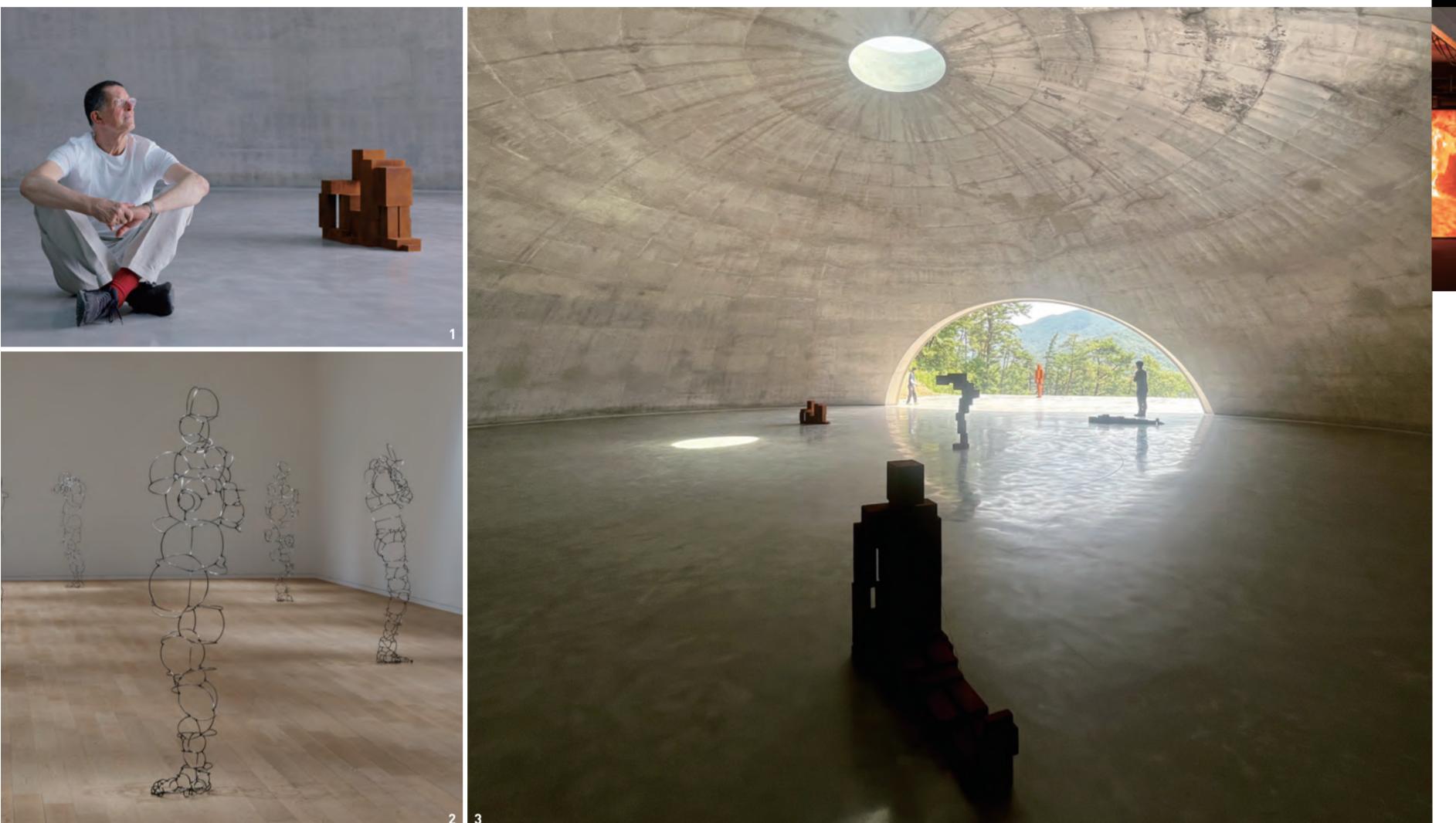
로테르담과 창조적 협업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건축가 마인송의 이력을 훑어볼 수 있는 전시가 건축, 디자인, 디지털 분야의 이슈를 다룬 헷 니우어 인스티튜트(Het Nieuwe Instituut)에서 현재 진행 중인데, 이 기관

글 고성연



# *Artist in Focus*

예술가의 혁신이란 무엇일까? 혁신가들은 남들보다 선구자적인 위치에서 깃발을 꽂는 게 아니라 예술은 자연이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을 완성시킨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처럼 공통분모를 지녔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구조와 흐름을 표현하고 미래의 ‘우리’에게 닿길 원하며 그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 존재이길 바란다. 각자의 ‘몸’에 참여하며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위한 회화를 선보인 힐마 아프 클린트(부산현대미술관), 하나의 기호를 무한하게 해석하는 료지 술가의 이야기가 뜨거운 하여름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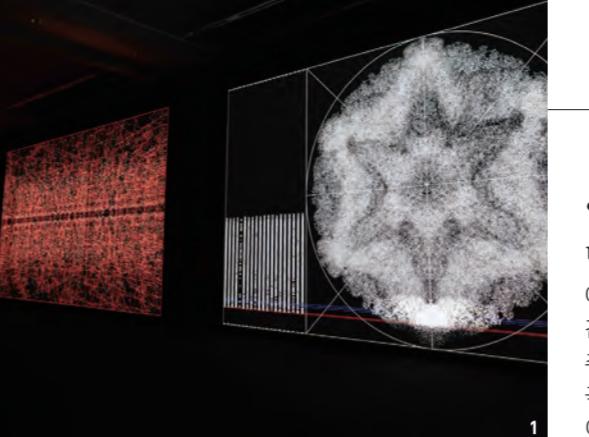
“예술은 진화의 징후이자 촉매”라고 힘주어 말하는 영국의 예술가 안토니 곤리(Antony Gormley, b. 1950). 그는 인간성, 공간, 대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사유를 담으면서도 변화하는 사회를 예술로 끌어들이고 있다. 정지된 조각에 우리 삶을 투영하게 만드는 그를 보면 예술가의 혁신이란 결국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존재 그 자체로 되돌아갈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각자의 몸이면서도 타인의 몸을 평등하게 담아낸 그의 조각은 사실 대단한 설명 없이 그냥 그 앞에 존재해보면 알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뮤지엄 산의 동굴 같은 공간이든, 리버풀의 해변 앞이나 템스 강변 앞이든, 그의 조각이 놓여 있는 곳 어디에서든 말이다.

1 안토니 골리는 안도 다다오와 함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판테온을 생각하며 뮤지엄 산의 새 공간 '그라운드(GROUND)'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몸 자체가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을 생각하며 작업했다고. 2 마치 기포처럼 가볍고 유연해 보이는 7개의 'Liminal Field' 시리즈가 설치된 뮤지엄 산 청조갤러리 1관 풍경. 이 시리즈는 인체의 형상을 기포 형태로 보여준다. Photo by 고성연 3 인체를 형상화한 7개의 조각이 놓인 뮤지엄 산의 '그라운드'에서는 관람객 자체가 조각이 된다. 우리 몸이 딛고 설 수 있는 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그라운드'이기도 하고 경험의 장으로서의 '그라운드'이기도 하다. 안토니 골리는 인간이 '이 세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4 '그라운드' 공간에 설치된 안토니 골리의 조각 작품 'RISE'(2024), 101.4×50.2×118.9cm, Cast iron. ※1, 3, 4 이미지 제공\_뮤지엄 산

몸으로 우주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조각가 강원도 원주에 자리한 뮤지엄 산은 반세기에 걸친 체계와 공간의 탐구, 인간의 존재를 고민해온 세계적인 조각가 안토니 골리의 대규모 개인전 <DRAWING SPACE>(11월 30일까지)와 더불어 그가 건축가로 활동한 다다오(Tadao Ando, b. 1941)와 협업해 조성한 새로운 공간 '그라운드(GROUND)'로 시선을 모으고 있다. 뮤지엄 산 설계를 맡기도 했던 안도 다다오는 안토니 골리에 대해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작가라는 점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인간의 생사, 그리고 생명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 개막식 프리뷰 당시 그는 '그라운드'에 먼저 등장한 안토니 골리는 공간에 놓은 점의 조각 'Block Works' 사이사이를 걸어 다니며 관객들에게도 조각 옆에 직접 누워보거나 앉아보는 권했다. "우리도 결국 죽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새로운 자양분으로 되어 모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조각가의 의무 중 하나로, 철학적 시간을 유념하면서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한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다른 것과 조각의 소명 중 하나라고 봅니다." 로마의 판테온에서도, 지구의 원형 같기도 한 '그라운드'에서 마주친 그의 연작은 건축과 조각, 자연이 가장 이상적으로 조화난 시간과 공간에서 '자신의 몸'을 사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몸을 어떤 이상화된 형상으로 생각하기보다 그 자체가 하나의 장소가 되는 걸 생각하며 작업했습니다. 드린 채, 머리를 옆으로 돌린 채, 혹은 하늘을 향해 위 있는 몸 조각들은 7개의 프레임을 통해 바람과 땅 속의 움직임 같으면서도 존재의 탄생과 소멸 그리고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나만 존재하는 공간만이 있을 뿐"이라는 작가의 말을 곱씹어보았다. 1960년대부터 인간이 자연과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조각의 가능성 을 발전시켜온 그의 철학은 천체가 중력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운동을 형상화한, 수십 개의 스틸 원형 구조 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설치 작품 'Orbit Field II'에서 생생 하게 느껴진다(〈DRAWING ON SPACE〉 전시). 관람객들은 작품 사이사이를 이동하면서 공간으로서의 '몸'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정신이 머무는 장소, 존재와 세상이 만나는 장소 등으로 끝없이 확장된다. 안토리 곤리의 무한한 세상은 미술관부터 도시, 도로, 산, 해변, 능선 같은 현실적 공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공공 미술의 역사를 다시 쓴 작가로 유명하기도 한데, 1998년 영국 북동부 게이츠헤드라는 작은 도시에 세운 초대형 조각 'Angel of the North(북방의 천사, 높이 20m, 무게 1백 톤에 달한다)'는 아주 작은 이 도시를 세계적인 문화 관광도시로 변신시키는 출발점이 되게 했고, 영국 리버풀 근교의 크로스비 해변에는 1 백 개의 인체 조각 'Another Place(또 다른 장소, 1997)'를 세워 크로스비 해변을 '꼭 가봐야 할 곳'으로 만들었다. 곧 우리나라 신안 비금도 해변에서도 거대한 그의 조각 'Elemental'을 볼 수 있다. 인체의 형태를 띠는 이 작품은 바닷물이 들어오면 잠기고 물이 빠져 나가면 관람객이 그 안에 걸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우리의 동물적인 본성을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촉촉한 인간의 두뇌를 메마른 AI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주만큼이나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자율적인 존재이기에 몸을 통해 우주를 알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안토니 곤리는 인간으로서 가장 소중한 부분은 이 세계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몸, 즉 다른 존재들과 교류하고 반응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1백 년쯤 뒤에는 그의 조각 옆에 어떤 풍경과 존재가 함께하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지 궁금해진다.



## 리지 이케다(Ryoji Ikeda)

주의 대표적인 예술 센터인  
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세계적인 사운드 아티스트 료지 이케다  
(Ikeeda, b. 1966)를 다시 초청했다. 2015년  
ACC 개관 당시 각종 데이터를 흑백 패턴과  
밀접한 전자음으로 변환하는 설치 예술을  
보여준 작가다. 오는 1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제3회 <2025 ACC 포커스-료지 이케다>에서는 총  
10개의 작품을 선보이는데, 존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부터 우주에 흐르는 물리학 데이터가  
함께 조율되며 소용돌이치는 장면을 마주하며  
현장을 가득 채운 원시 상태의 소리 같은  
음악을 들게 될 것이다.

## 힐마 아프 클린트(Hilma af Klint)

화감독 할리나 디르슈카는 힐마 아프  
린트(Hilma af Klint, 1862~1944)의 전시회를  
여온 뒤 2019년 다큐멘터리 〈힐마 아프  
린트-미래를 위한 그림〉을 제작했다. 그녀가  
세로 생활하고 지냈던 곳들도 함께 보여주며  
점이 넘는 그림을 홀로 실험한 생애를  
령했다. 2018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는  
아아프 클린트 대규모 회고전 〈힐마 아프  
린트: 미래를 위한 회화〉를 열었고 당시  
만 명 넘는 관람객이 모였는데, 전시를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도대체 그녀가  
구인지 묻기 바빴다. 2023년 런던 테이트  
전에서는 힐마 아프 클린트와 몬드리안의  
품을 함께 전시한 〈Forms of Life〉를 열었다.  
해 일본 도쿄국립근대미술관 전시에 이어  
새로 온 그녀의 대규모 회고전 〈힐마 아프  
린트: 적절한 소환〉을 부산현대미술관에서  
보인다(10월 26일까지). 이렇듯 ‘힐마 열풍’이  
는 이유는 무엇일까?

녀가 드디어 도착했다

▶ 출신인 헬마 아프 클린트는 무려 한 세기 동안  
작사에 호출되지 않은 작가다. 생전 그림을 꽁꽁 숨  
았고, 자신의 사후 20년 동안 작품을 알리지 말라는  
遗嘱까지 남겼는데, 뒤늦게 그녀의 방대한 작업이 공개  
되면서 미술계의 이목이 쏟아지게 된다(헬마 아프 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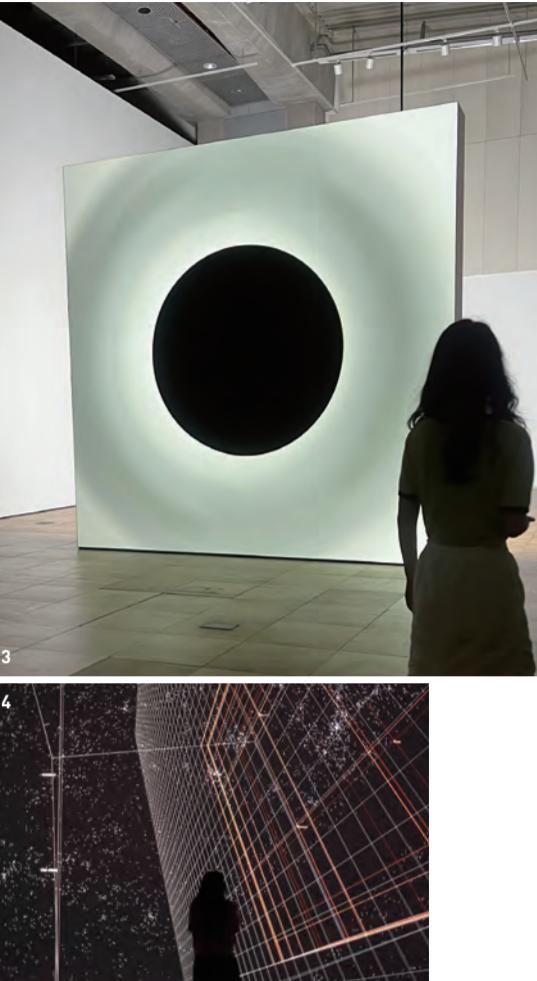
##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 데이터의 본질적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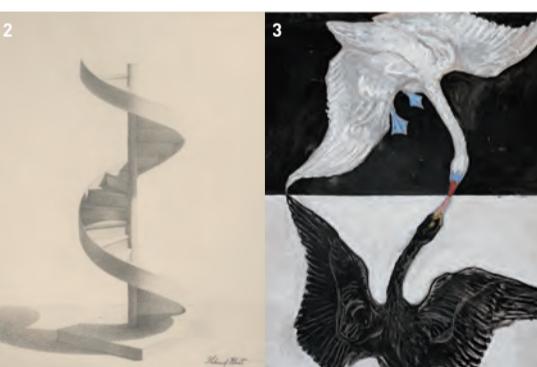
예술과 기술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감성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 기술과 데이터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예술은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극도로 말을 아끼는 듯한 사운드 아트의 선구자 데지 이케다(Ryoji Ikeda, b. 1966)는 검은색 모자를 끙 놀라시고 있는 표지 아래에는 소리와 빛, 데이터와 수학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작품에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담아낸다. 사진 속 작품은 'data-verse 1/2/3'(2019~2020).

려쓴 채 마치 작은 비밀을 말해주는 듯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 전시는 작곡과 비슷해요. 음악을 작곡하듯 데이터에서 발견한 영감과 아름다움을 반영하죠.” 데이터가 연주하는 오페스트라에 다른 아니다. 실제로 ‘데이터 아티스트’라고도 불리는 료지 이케다는 감각을 깨워주는 미학적 재료로 데이터를 다루며 물리학적 세계의 구조를 아름답게 표현한다. 그는 데이터의 본질적 아름다움은 인간 감각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했다. 1990년대 백색 소음을 순음을 결합한 전자음악 실험으로 예술 활동을 시작한 그는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와 설치로 확장하며(1996년 아방가르드 그룹 ‘덤 타입(Dumb Type)’과의 협업을 계기로 시작) 데이터 미학을 시각 예술로 구체화한 작가다. 소리와 빛, 수학적 구조와 데이터의 반복으로 전자음악과 데이터에 대한 실험을 해오고 있는데, 그의 ‘데이터 버스(dataverse)’를 보면 그 직관적인 아름다움에 놀라게 된다. 전시장 입구에 있는 ‘data. flux [n°2]’(2025)의 DNA 데이터가 천장의 10m 스크린에서 끊임없이 흐르는데, 마치 은하수나 오로라처럼 느껴진다. 커다란 전시 공간의 한쪽 벽을 3개 스크린으로 감싸는 이미지 제공\_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2 ‘디지털의 송고함’까지 느껴지게 하는 작업 ‘data-verse 1/2/3’(2019~2020). 데이터버스 영상 3부작은 나사, 유럽입자물리연구소, 인간 게놈 프로젝트 등에서 수집한 우주 관측 자료와 우전자 정보 같은 과학 데이터를 소재로 제작했다. 뮤지션인기도 한 료지 이케다는 백색 소음을 결합해 인간 청각의 극한을 실험했으며 20Hz 이하의 초저주파가 발산하는 물리적 진동을 탐구하기도 했다고. Photo by David Stjernholm 3 가만히 서 있으면 블랙홀처럼 뺄려 들어갈 것 같은 료지 이케다의 설치 작품 ‘point of no return’(2018). Photo by 고성연 4 료지 이케다의 ‘data-verse 1/2/3’(2019~2020). 이미지 제공 ACC

data-verse 1/2/3'(2019~2020)는 막막한 암도감까지 들게 하는 작품이다. 나사(NASA),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인간 게놈 프로젝트 같은 데서 수집한 우주 관측 자료와 인간 유전자 정보 등을 영상 3부작으로 구성했는데, 무려 20여 년에 걸쳐 완성했다고. “데이터는 정적인 데이터와 동적인 데이터로 구분하는데, 정적인 데이터는 이미 존재하지만 인간이 과학의 발전으로 발견해낸 천체물리학 같은 걸 말합니다.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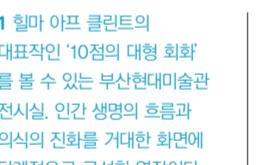
데이터에 포함되는데, 이 많은 정보 중 어떤 걸 추출해 작업에 녹여낼지는 직접 공부하고 이해하면서 결정합니다.” 해석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지양한다는 뜻이 이케다는 이렇듯 기본 개념을 전달하면서 순수한 음악처럼 즐거웠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물입강을 주는 바닥 스크린에 투사된 ‘critical mass’(2025)에서 울리는 전자 음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대답을 들려주는 듯하다.



작업의 흐름을 따라 구성된 1백39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거대한 존재를 향하는 것 같은 신전을 위한 회화는 그녀가 당시 심취해 있던 신지학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불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와 고대 종교적 사상을 아우르는 신지학의 인기는 당시 굉장히 높았다). 이에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1908년 그녀는 저명한 신지학자이자 철학자 룰돌프 슈타이너를 초대해 은밀히 자신의 작업을 보여줬다고 한다. 당시 슈타이너는 “앞으로 50년 동안 누구도 이 그림들을 봄자는 안 된다”라고 했고, 그녀는 자신의 회화가 도달해야 할 시점은 ‘미래’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작품을 더욱 꽁꽁 숨기며 ‘신전을 위한 회화’ 연작이나 인지학을 파고들고 글쓰기와 기록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녀의 후반기(1930년대) 작품은 처음에 빠져던 꽃과 나문로 다시금

향하는 것 같다. 단순해진 기호와 물감의 느슨한 흔적  
으로 자연과 인간 내면의 연관성에 몰두한 작품을 들  
여다보면 불완전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  
와 영혼을 추구했던 작가의 초월적인 생애와 예술이 여  
전히 물음표처럼 스쳐 지나간다. 글 김수진(각원 에디터)

**1 미디어 아트와 전자음악**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료지 이케다는  
소리와 빛, 데이터와 수학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작품에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담아낸다. 사진 속 작품은 'data-  
verse 1/2/3'(2019~2020).  
이미지 제공\_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2** '디지털의 숭고함'까지  
느껴지게 하는 작업 'data-  
verse 1/2/3'(2019~2020),  
데이터버스 영상 3부작은 나사,  
유럽입자물리연구소, 인간  
개놈 프로젝트 등에서 수집한  
우주 관측 자료와 유전자 정보  
같은 과학 데이터를 소재로  
제작했다. 뮤지션이기도 한 료지  
이케다는 백색 소음을 결합해  
인간 청각의 극한을 실험했으며  
20Hz 이하의 초저주파가  
발산하는 물리적 진동을  
탐구하기도 했다고. Photo by  
David Stjernholm **3** 가만히 서  
있으면 블랙홀처럼 뻘려 들어갈  
것 같은 료지 이케다의 설치  
작품 'point of no return'(2018).  
Photo by 고성연  
**4** 료지 이케다의 'data-  
verse 1/2/3'(2019~2020).  
이미지 제공\_ACC



근제적으로 구성한 연작이다.  
2 힐마 아프 클린트의  
나선형 계단에 관한 조형 습작  
'빛과 그림자'(1880), 종이에  
목탄, 흑연, 62×49cm, 힐마  
아프 클린트 재단 제공. 힐마  
아프 클린트는 초기에 자연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 세밀한  
묘사를 많이 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주요 회화  
연작을 중심으로 드로잉과  
기록 자료를 포함해 총 1백39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3 힐마  
아프 클린트의 'No.1, 백조',  
그룹 IX파트 I, SUW 연작  
(1914~1915), 캔버스에 유채,  
150×150cm, 힐마 아프  
클린트 재단 제공. 힐마 아프  
클린트는 페생 결혼하지 않고

# Monumental Pieces

올해 바쉐론 콘스탄틴은 설립 27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해 이번에 제네바에서 열린 워치스 & 원더스에서 메종의 아이코닉한 트래디셔널과 패트리모니 컬렉션의 신제품 위치를 공개했다. 메종의 엠블럼인 말테 크로스를 모티브로 한 패턴 디자인을 중심으로 섬세한 마감과 정교한 기술력을 더해 완성도 높은 미적 감각을 자랑한다.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위부터)

## TRADITIONNELLE Manual-Winding

설립 27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메종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기하학적 패턴을 새긴 은은한 실버 톤 디자일이 매력적인 모델. 케이스는 직경 38mm이며 950 플래티늄 소재로 완성하고 매뉴팩처 칼리버 4400 AS/270을 장착했다. 12시 방향의 상장적인 말테 크로스 엠블럼과 그 반대편 6시 방향에 스몰 세컨즈를 배치해 메종만의 정체되고 모던한 디자인적 미학이 돋보인다. 5천7백만원.

## TRADITIONNELLE Complete Calendar Openface

직경 41mm 950 플래티늄 케이스에 메종만의 독특한 오픈워크 디자일을 더하고, 3백12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매뉴팩처 칼리버 2460 QCL/270의 정교한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는 트래디셔널 컴플리트 캘린더 오픈페이스. 1백22년에 한 번만 조정하면 되는 정확한 문페이즈 디스플레이는 블루 컬러 배경으로 이뤄진 창과 대비되는 효과로 매혹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3백7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1억9백만원.



(위부터)

## PATRIMONY Moon Phase Retrograde Date

메종은 패트리모니 컬렉션에 27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인 문페이즈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모델을 선보였다. 케이스 사이즈는 직경 42.5mm로 조금 더 크게 완성했고, 소재는 18K 5N 핑크 골드로 마무리했다. 셀프 와인딩 모델에 문페이즈와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표시 기능을 추가했으며, 40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셀프 와인딩 매뉴팩처 칼리버 2460 R31L/270으로 구동한다. 8천2백50만원.

## PATRIMONY Self-Winding

메종의 엠블럼인 말테 크로스에서 영감받은 섬세한 기하학적 모티브를 디자일에 담았다. 이 디자일을 강조하기 위해 바통형 인덱스와 6시 방향에 심플하게 배치한 날짜창 등 모든 요소를 최소화해 정교하게 마감했으며, 메종만의 정체되고 세련된 미학이 돋보인다. 18K 5N 핑크 골드 소재에 직경 40mm 케이스를 더하고 다크 그린 앤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으로 생기를 부여했다. 5천4백50만원. 문의 1877-4300 에디터 성정민

# A Passion for Authenticity

시원하게 높은 천장, 블랙과 아이보리, 그리고 골드 컬러가 고급스럽게 어우러진 명동 한복판, 신세계 헤리티지 샤넬 부티크에서 샤넬 워치 & 화인 주얼리 사업부의 글로벌 수장 프레데릭 그랑지에를 만났다. 2016년 샤넬에 부임한 이래 워치 & 주얼리 분야의 놀라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는 샤넬이라는 브랜드와 샤넬의 워치, 하이 주얼리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이번에 서울에 새로 오픈한 헤리티지 부티크에 대한 자부심을 아낌없이 표현했다. 막힘 없는 답변 속 단단한 소신과 폭넓은 견해가 외유내강의 지혜로운 리더임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감동을 주는 경험에 가치를 두고, 정직함과 진정성이 혁신의 기본이라 말하는 프레데릭 그랑지에,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삼 알게 된 샤넬과 럭셔리업계의 나아갈 길, 그리고 리더십에 대하여.

## 프레데릭 그랑지에(Frédéric Grangier)

프레데릭 그랑지에는 2016년 7월 샤넬 워치 & 화인 주얼리 부문의 지휘를 맡게 되었다. 1992년 인스티튜트 쉐페리외르 드 마케팅 뒤 럭스(Institut Supérieur de Marketing du Luxe)를 졸업한 후 LVMH 그룹에서 21년간 근무했으며, 최근에는(2010년까지) 일본 루이 비통의 CEO를 역임했다. 미국부터 일본,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경력을 쌓으며, 고객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기웠다.

(왼쪽) 서울 명동의 신세계 헤리티지 샤넬 부티크에서 만난 샤넬 워치 & 화인 주얼리의 글로벌 수장 프레데릭 그랑지에. 시계와 주얼리 분야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해박한 자신이 가득한 멋진 리더의 모습이다. 워치 메이킹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디렉터인 아르노 샤프팅(Arnaud Chastaingt)이 선물한, 특별한 J12 블루 워치를 차고 시계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그를 보며 샤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자속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다. 신세계 헤리티지 샤넬 부티크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났는데, 매장 입구에 걸린 미디어 아트 작품부터 천장의 장식까지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모습도 무척 인상적이었다.

**대표님이 차고 있는 멋진 시계가 눈에 띄는군요. J12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번에 새로 선보인 J12 블루인가요?** 이 시계는 사실 독보적인 워치입니다. J12 블루 컬러는 독특한 '샤넬 블루'인데 개발에만 5년이 걸렸죠. 저희가 찾는 완벽한 블루가 있었거든요. 워치 메이킹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디렉터 아르노 샤프팅(Arnaud Chastaingt)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완벽한 블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세라믹은 빛에 따라 느낌이 다릅니다. 살아 숨 쉬는 소재이기 때문에 자연 채광에서 볼 때와 인공조명 아래에서 볼 때 다른 느낌을 주지만 샤넬의 블루는 변하지 않습니다. 축감은 실크 같고 철강보다 7배나 더 단단해요. 부드러우면서 견고하니, 정말 특별한 소재죠.

J12는 지난 25년간 샤넬 워치의 아이콘이자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아이코닉한 제품을 절은 세대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하면서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5년 동안 워치를 제작한다는 건 워치에 진심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2000년에 나온 원형 샤넬 워치는 천재적인 디자인이었고, 소포츠 워치 느낌으로 남녀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또 세라믹을 럭셔리 소재로 업그레이드한 것도 신의 한 수였습니다. 덕분에 2000년 출시 당시에도 독보적인 시계였고, 그후 계속 발전해 25년 만에 새로운 컬러로 제작되어 아이콘을 기념하면서 새로운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고객층의 변화를 느끼셨나요? 고객이 확실히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요. 아르노 샤프팅이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J12 블루의 경우, 기존 블랙/화이트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마감인데, 무광/매트 처리해 정밀 부드려워요. 사실 저는 이 시계가 출시되면 남성 고객을 사로잡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워치스 & 원더스에서 소개한 날, 즉 4월 1일 출시했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이 시계를 사는 고객의 20~30%가 남성입니다. 이렇듯 고객층이 확장되었고, 여성 고객의 사랑도 여전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샤넬 워치 & 화인 주얼리 부문이 굉장히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님이 부임한 이후 최대의 성장이나 변화를 경험한 모멘텀이 있다면 언제 일까요? 대내적인 변화를 두 번 감지했는데, 2018년 후반 코코 크라쉬 라인에 몇 년 동안 집중하기로 결정했을 때입니다. 2020년이 코로나 원년이었는데도 몇 년 만에 아이코닉한 라인으로 자리를 잡았고 아직도**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크게 성공해 코코 크라쉬는 모멘텀과 규모의 변화를 제일 잘 보여준 컬렉션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멘텀이 오면 공장의 생산 능력, 공방의 실력, 연구 개발, 최고의 품질, 장비 등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작과 이미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품도 완벽해야 하는데, 코코 크라쉬는 엄청난 성공을 한 특별한 주얼리 라인입니다. 이때 큰 변화를 감지했고, 한국에서 성공한 것을 보고 세계적인 성공을 예상했어요. 두 번째로 제가 감지한 큰 변화는 2019년에 J12를 다시 론칭할 때, 아르노 샤프팅이 새롭게 디자인해서 눈에 볼 때와 착용했을 때의 느낌은 같았지만 시계를 80% 바꿨을 때입니다. 어찌 보면 살짝 시술해서 재탄생시킨 셈인데, 국도의 정밀함을 구현해낸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때 샤넬이 세라믹 소재는 섭렵했으니, 시계 무브먼트는 꼭 자체 생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스위스 시계 제조사 케니시(Kenissi)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사업의 규모가 커집니다. 케니시는 최상급 무브먼트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J12를 착용해보니 두께도 무게도 착용하기에 아주 적당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착용 시 느낌과 무게도 시계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죠. 비율뿐 아니라 두께도 착용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샤넬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워치메이킹은 국도의 정밀함이 관건이에요. 저는 워치메이킹을 종종 자동차 산업과 비교합니다. 슈퍼카는 빠른 속도나 좋은 엔진을 장착했는지 따져야겠지만, 명품이나 아내나 차이는 문을 열고 닫을 때의 소리입니다. 문이 닫힐 때 나는 소리가 차의 금을 알려줘요. 시계도 마찬가지죠. 같은 원리로 시계를 착용할 때도 감각이 반응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문소리를 듣고 품격을 느끼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버클도 특별한 소리로 샤넬이 특허를 받았고 타 브랜드에 납품하고 있어요. 샤넬 고객과 샤넬의 버클을 사용하는 타 브랜드에 버클 소리는 최고의 품질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매개체입니다.**

**버클을 오픈할 때 나는 소리까지 신경 쓴다니, 이런 부분은 정말 신선히군요! 그런가요? (웃음) 버클 소리가 J12의 성공에 더 많이 기여했을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했듯 포르쉐 911 같은 슈퍼카도 문을 여닫을 때 나는 소리로 품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원리입니다. 최근 많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하이엔드 시계와 주얼리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샤넬만의 차별화된 접근 방식은 무엇인가요? 샤넬은 가족 소유의 독립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운영됩니다. 샤넬이 이 시장에 기여한 것은 지난 40년 동안 타 브랜드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크리에이션을 시장에 소개했다는 것이고, 최고의 워치 브랜드와 동등한 품질을 약속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샤넬은 시계를 대중 제작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최고의 시계 기술을 샤넬의 창의력, 이미지와 접목하고, 고급 시계에 대한 질문에 답하자면, 아르노 샤프팅은**

**“  
지금 저에게 진정한 혁신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샤넬 부티크에서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 프레데릭 그랑지에 (Frédéric Grangier)

작품을 보면 기술과 무브먼트는 크리에이션을 위해 존재합니다. 샤넬은 무브먼트를 먼저 제작하고 시계를 만들지 않아요. 무브먼트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브먼트도 크리에이션의 일부이니까요. 이것을 입증하는 좋은 예를 소개할게요. 샤넬의 디아이몬드 투르비옹 워치를 보면 디아이몬드가 60초마다 회전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갖추었습니다. 저희는 투르비옹 케이지 안에 부유하는 디아이몬드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를 위해 투르비옹을 자체적으로 디자인, 개발했을 뿐 아니라 하이 주얼리 팀에 디아이몬드 커팅을 달리해서 평행한 디아이몬드의 광채를 최대한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전통적인 57면의 컷 대신 샤넬이 등록한 65면의 컷을 개발했죠. 덕분에 디아이몬드가 정말 아름답게 반짝입니다. 크리에이션이 기술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샤넬의 하이엔드 워치는 혁신을 위한 혁신을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복잡하게 제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시계 기술과 크리에이션을 접목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워치를 완성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마켓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다른 시장과 비교할 때

한국 시장이 어떤 점에서 특별하고 느끼시나요? 한국과 샤넬의 관계와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한국 시장과 한국 고객의 에너지, 세련된 안목 덕분에 항상 특별한 인연을 맺고, 한국은 언제나 트렌드를 주도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처음 나온 멘션 콘셉트와 고개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 헤리티지 부티크도 그런데, 이런 건물은 전 세계에 하나뿐일 겁니다. 한국은 가장 많은 창작과 놀라운 에너지가 넘치는 시장입니다. 사실 시장은 언제나 상승세와 하락세를 반복하면서 움직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우여곡절이 항상 있고, 사업에도 이런 주기가 있는데, 샤넬과 같은 인연을 자닌 한국은 큰 보람과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한국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참 많아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보는데, 워치와 화인 주얼리 사업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시장 기준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 시장과 샤넬 코리아 팀, 한국 고객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럭셔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셨을 텐데, 본인의 리더십 스타일과 럭셔리 브랜드에서 필요 한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호기심을 갖고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럭셔리 산업만 보지 말고 시야를 넓혀야 해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특히 경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요즘 우리는 점점 더 다양한 팀이 협업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일하고, 그럴 때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합합니다. 디지털 기술 덕분인데, 저도 일을 하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즉각적인 소통을 통해 디지털 환경의 진화 과정을 거치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리더는 자신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해요. 그래야 더 오래,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저보다 실력 있는 전문가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것이 제가 일을 하면서 터득한 점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각자 맡은 일에서 내 브랜드, 내가 일하는 메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정을 할 때 단기·중기·장기 결정을 하지만 단기 결정도 매번 정기적인 안목을 갖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떠난 다음에 브랜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죠. 수년 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보면 방향이 잡힙니다. 리더십에는 이런 요소들이 다 필요 한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샤넬과 같은 럭셔리 브랜드에 '전통'과 '혁신'

은 어떤 의미인가요? 샤넬의 경우 혁신은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여러 형태로 발현됩니다. 저는 혁신이 꼭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객의 여성과 경험을 지원하는 혁신은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건물도 2005년의 리테일 경력을 갖춘 제2본 최고의 리테일 혁신입니다. 이 건물을 보면 특별한 하이테크 혁신은 없어요. 콘셉트 자체가 놀라운 혁신인데, 우리는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를 없애야 해요. 혁신은 우리가 자리한 이 오프라인 부티크가 될 수 있고 강감동을 줄 수 있어요. 어제 여기 와서 아트리움에 있는 미술 로브너 (Michal Rovner)의 설치 작품을 보고 감동했어요. 이 작품은 한국의 사계절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1935년에 이는 역사적인 빌딩에서 가장 아름다운 샤넬 부티크 중 하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혁신은 그래서 기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비전 있는 사람들이 주도해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저는 이런 조합이 특별하고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하면 늘 AI를 떠올리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게 혁신입니다.

한국 고객들이 이 헤리티지 부티크에서 어떤 경험을 하길 바라나요? 18개월 전 한창 공사 중일 때 제가 여기를 걸어 다니다가 역사적인 디태일에 눈길이 갔어요. 엘리베이터, 벽, 벽지, 동전 등. 이 건물은 온행이었으니까요. 이 공간을 다니면서 건물과 교감하는 느낌이었어요. 피터 마리노 (Peter Marino)가 부티크를 디자인하면서 법의 손을 통해 공간이 완성되면서, 2025년 현재 샤넬 브랜드의 모습과 역사적 추억이 담긴 건물의 유산을 보존하고, 샤넬 브랜드의 가장 최신 워치 & 화인 주얼리 & 패션의 섬세함, 디자인 패브릭의 놀라운 사용, 건축 요소를 부각한 디테일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샤넬은 리테일을 통해 어떤 브랜드인지 표현하고 알려줍니다. 샤넬은 시계, 주얼리, 패션 모두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아요. 고객의 경험에 리테일 공간에서 더 확장되는 것이 어떤 AI 솔루션보다 혁신적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샤넬 부티크에서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챗GPT가 아니라 이런 것이 진정한 혁신입니다. 이 부티크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에디터 김유미



“

리더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협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호기심이죠. 리더는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해요. Be Curious!”



# The Birth of Modern Luxe

지난 6월, 밀라노의 주얼리 메종 포멜라토(Pomellato)가 피나코테카 디 브레라에서 열린 화려하고 특별한 갈라 디너를 통해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 'COLLEZIONE 1967'을 공개했다. 모두 핸드메이드로 완성된 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포멜라토만의 독창적인 정신을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감각의 모던 럭셔리의 탄생을 예고했다.

## 'COLLEZIONE 1967', 하이 주얼리 마니페스토(Manifesto)의 탄생

포멜라토(Pomellato)가 메종의 주얼리 마니페스토(manifesto)로 자리매김할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 'Collezione 1967'을 선보였다. 포멜라토의 시그너처 컬러인 레드 설치 작품과 수많은 콧불로 장식된 피나코테카 디 브레라(Pinacoteca di Brera)에서 성대하게 열린 행사에서 모델들은 역사적인 살레 나폴레오니가 갤러리를 런웨이 삼아 볼륨감과 조각적 디자인 이 돋보이는 하이 주얼리를 착용하고 등장했다. 쇼가 끝난 후 밀라노의 창의적 혁신과 경쾌하고 풍부한 감성을 표현된 만찬이 이어졌으며, 현악 사중주로 우아하게 론칭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이곳을 행사 장소로 선택한 것은 포멜라토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창립자 피노 라볼리니(Pino Rabolini)가 혁신적인 주얼리 철학을 처음 구상한 곳으로, 지금도 밀라노 창조성의 심장부이자 예술의 중심지로 여겨진다. 예로부터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던 장소에서 다시 한번 전통을 기리며 하이 주얼리의 미래를 그리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이날의 주인공인 'Collezione 1967'은 메

1 '이코니카 익스트림'. 대담한 볼륨감과 기하학적인 정교함이 만난 로즈 골드 체인 가운데 메인 체인을 중심으로 비케트 컷,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제인이 예술적이다.  
2 체인마다 다이아몬드를 세심하게 세팅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스케치. 3 같은 이코니카 익스트림 라인의 볼드한 링, 빛을 흘러놓은 듯한 다이아몬드가 인상적이다.  
4 1980년대에서 영감을 받은 볼드 매력의 탄자나이트 네크리스와 링 세트. 모듈로 연결된 다이아몬드 풀 파베 네크리스에 55.23캐럿 탄자나이트를 매치한 목걸이와 37.73캐럿의 반지가 세트를 이룬다. 5 완벽한 세팅을 사랑하는 그린 웨이브(Green Waves) 팔찌.



종의 예술적 시그너처를 바탕으로, 포멜라토의 풍부한 헤리티지에서 비롯된 시그너처 아이덴티티를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해 담아냈다. 밀라노의 가사(Casa) 포멜라토에서 마스터 장인들의 손길로 완성된 각 작품은 세기 동안 이어온 전통적인 금세공 기술과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다. 희귀한 젠스톤의 조합은 색채와 빛의 유니크한 조화를 만들어내며, 혁신적인 스톤 세팅 방식은 창조성과 탁월함이 어우러진 더 큰 예술적 서사를 완성했다. 총 75점의 하이 주얼리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컬렉션은 1970년대의 혁신적인 체인 공예, 1980년대의 조각적 디자인, 1990년대의 대담한 색재 활용과 풍부한 형태감 등 포멜라토의 정체성을 만들어온 세 시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진정한 럭셔리는 소중하면서도 유쾌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동시에 현대적일 수 있다는 포멜라토의 철학이 돋보인다.

## THE CHAIN REVOLUTION: 1970s

1970년대, 역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포멜라토 창립자 피노 라볼리니는 기능적인 요소였던 체인을 주얼리 디자인의 핵심 요소로 재해석했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무게감은 체인이 마치 제2의 피부처럼 느껴지게 하고, 눈에 띠지 않는 잡금장치는 전체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이러한 체인은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주얼리에서의 '해방'을 상징한다.

## BREAKING THE RULES OF DESIGN: 1980s

1980년대는 대담한 시도와 예술적 상상력이 넘치는 시대였다. 이 시대 포멜라토의 유산은 건축적 접근을 통한 스톤 디자인에 있다. 창의적인 기법과 대담하고 감각적인 형태가 중요했던 이 시기의 디자인은 개성과 실험적인 스타일이 돋보이는 포인트를 강조했다. 각 작품은 1980년대의 창의적인 정신을 반영하며, 볼륨과 세이프가 핵심이 된 시대의 특성을 보여준다.

## THE CHROMATIC VISION: 1990s

1990년대가 시작되면서 낙관적인 분위기가 사회를 휩쓸었고, 미니멀리즘과 화려함이 어우러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건축과 디자인에서는 깔끔한 선과 단순화된 형태가 주를 이루었고, 패션과 문화에서는 색깔의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억제되지 않은 자유로움과 패션 문화의 끝없는 가능성성이 반영되었다. 희귀한 보석과 혁신적인 컷, 대담한 볼륨을 결합한 독창적 조합을 통해 포멜라토는 색상을 다루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였고, 그것이 브랜드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6 1980년대 스타일의 그린 투르mal린 소재의 이어링, 비정형적 디자인의 정의성이 돋보인다. 7 1970년대에서 영향 받은 체인 및 귀금속으로 만든 조각 작품으로 표현한 블루 체인 캐스케이드(Blue Chain Cascade). 혁신적인 듀얼 체인과 22.23캐럿의 희귀한 실금 사파이어로 이루어졌다.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Get

# The List

**GRAFF**

브랜드만의 노하우로 완성한 고퀄리티 다이아몬드와 커팅 및 세팅 기술이 돋보이는 베터플라이 컬렉션의 마키즈 컷과 페어 세이프 다이아몬드 링. 다이아몬드 총 1.76캐럿을 세팅했다. 4천4백63만원  
그라프. 문의 02-2256-6810

**MIU MIU**

나일론과 리사이클 원단 등을 믹스해 거친 스트리트 무드와 인더스트리얼 감성을 더한 2025 F/W 컬렉션 스니커즈 가격 미정  
미우미우. 문의 02-541-7443



**QEELIN**  
중국에서 강력한 행운과 긍정의 기운을 자녔다고 믿는 숫자 8의 국선에서 영감받은 컬렉션의 링. 18K 로즈 골드에 제이드로 완성하고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7백69만9천5백원 키린.  
문의 02-6905-3453



**BVLGARI**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영감받아 대담하고 건축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비제로원 컬렉션. 다이아몬드를 파여 세팅한 커프 디자인의 엘로 골드 소재 이어링 1천3백70만원 불가리.  
문의 02-6105-2120



**POMELLATO**  
풍성한 볼륨감이 돋보이는 이코니카 컬렉션의 링으로 로즈 골드 밴드에 다양한 모양의 흙을 파고 그 안에 그린, 핑크, 오렌지, 블루 사파이어와 차수정, 루비, 그리고 지르콘을 세팅해 컬러풀하게 완성했다. 가격 미정  
포멜라토. 문의 02-3143-9486

**PRADA**

2025년 F/W 쇼에서 처음 공개된 백으로 비전형적인 비율과 뱀띠처럼 부드러운 촉감의 나파 가죽으로 자연스러운 주름을 만들어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다다 백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0



**OMEGA**  
브랜드의 오랜 해양 탐험 전통을 기념하는 아이코닉한 타임피스 씨마스터 어쿠아 터리 38mm. 케이스와 크라운에 전체 폴리싱 처리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사용했으며 브라스 소재의 애틀란틱 블루 컬러 다이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9백만원대 오메가. 문의 02-6905-3301



**FENDI**  
아이코닉한 컨투어 아르코 모티브로 완성한 웨지힐. 핑크 컬러의 글로시한 해그피시 레더를 사용해 독특하고 개성 있는 느낌으로 뒷에 포인트를 주기에 안성맞춤이다. 1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44-1925  
에디터 성정민

# Happy Hour

블루와 그린, 그린과 블루.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산뜻하고 청량한 워치 7. PHOTOGRAPHED BY PARKJAEYONG



(맨 앞부터 차례대로) 볼드한 블랙 프레임과 골드 로고가 강렬한 음브레 선글라스 가격 미정 미우미우 문의 02-541-7443. 짙은 브리지와 사링스러운 반투명 링크 렌즈가 조화로운 선글라스 가격 미정 막스마라 문의 1661-4841. 엘로 컬러의 버터플라이 프레임에 브라운 톤의 그레이션 렌즈를 매치한 선글라스 가격 미정 풀 포드 문의 02-6905-3640. 시원해 보이는 메탈 템플을 적용한 트리옹프 선글라스 80만원 셀린느 문의 1577-8841. 그린 렌즈의 가장자리에 장식한 금속 라인과 로고 레터링이 포인트인 LV 수퍼 비전 스웨어 선글라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턴티드 엘로 렌즈의 오버사이즈 고글형 선글라스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0. 관능적인 호피 프레임의 T 타임리스 선글라스 43만원 토크 문의 02-3438-6008. 날렵한 삼각 프레임이 돋보이는 스파이크 선글라스 40만원대 맥퀸 문의 02-6102-2226 에디터 김하얀



## Cover Your Eyes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스타일의 완성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개성 강한 선글라스. PHOTOGRAPHED BY PARKJAEYONG

월트 패턴의 코코 크라쉬 후프 이어링,  
화이트 & 베이지 골드와 다이아몬드가  
만난 코코 크라쉬 싱글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샤텔 화인 주얼리. 직경  
35mm 케이스에 다이아몬드 베젤과  
앨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더한  
레이디비버드 컵플리트 캡린더 워치  
3천만원대 블랑팡. 화이트 세라믹에  
핑크 골드의 일파벳 D로 장식한 디  
아이콘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다미아나.  
하늘색 실크 드레스 가격 미정 미우미우.

(위부터 차례대로) 뒷 고리 셰이프의  
핑크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포스텐 풀 파베 라지 링  
가격 미정 프레드. 로즈 골드와 화이트  
골드에 3백9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볼드하게 마무리한  
포제선 링 5천4백50만원 피아제. 얼음  
큐브에서 영감받은 정육면체 디자인이  
특징이며 3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골드 소재 아이스 큐브 링  
1천2백93만원 소파드. 화이트 골드에  
43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링, 24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0.09캐럿 다이아몬드  
1개를 세팅한 로즈 골드 소재 브레이슬릿  
모두 포제선 데코 갤러스 컬렉션  
가격 미정 피아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이코니카 엑스프라  
슬림 링 가격 미정 포멜라토.

# DEFINITELY

나른한 듯 단단한 시선, 어느새 발그레진 볼, 순수해서 매혹적인 8월의 신부를 마주한 순간.

PHOTOGRAPHED BY PARK HYUN GOO

# Y O U



파베 세팅한 다이아몬드 사이 유색 스톤  
아쿠아프레일즈가 포인트인 써펜 보헴  
아쿠아프레일즈 트리플 모티브 링  
1천만원대 부쉐론, 스카이 블루  
토파즈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누도  
미니 네크리스 가격 미정 **포엘라토**.



(위) 총 21.11캐럿의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를 비규칙적으로 배열해 유니크한 스레드 컬렉션 네크리스 가격 미정 **그라프**, 34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사이에 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화이트 골드 소재 포제션 데코 팔리스 네크리스 2천6백만원 **피아제**.  
심플한 멋의 엘로 골드 아이스 큐브 브레이슬릿 9백2만원 **쇼파드**. 을 블랙 드레스 4백10만원 **돌체앤가바나**. 그레이 소재 블랙 퀼 1백45만원 **셀린느**.  
(아래) 행운을 상징하는 네 잎 클로버를 화이트 골드와 칼세도니로 완성한 빈티지 알함브라 풍 네크리스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화이트 골드와 총 1.43캐럿의 다이아몬드로 구성한 젤 디올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아코야 진주에 엘로 골드의 가시 모티브를  
더한 데이퍼처 흐름 네크리스 가격 미정,  
두세 번 감아서 착용 가능한 아코야  
진주 롱 네크리스 가격 미정, 드레스에  
정식한 엘로 골드와 아코야 진주의 밸런스  
시그니처 브로치 가격 미정 모두 타사기.  
페일 핑크 투브 톰 드레스 다나엘  
프랑켈 by 소유 브라이얼. 블랙  
롱 글러브 에디터 소장품.



화이트 골드 케이스와 블랙 그랑 피  
에나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베젤과 6시  
방향에 위치한 페이스 스트론이 친연한  
분위기를 뿐어낸다. 오른쪽 하단에  
적용한 크라운으로 개성을 살린  
레이인 드 네이탈 8918 블랙 에나멜  
워치 6천5백만원대 브레게.



2개컷의 다이아몬드를 수놓은 프로미스  
링, 총 6.2개컷의 마크존 컷과 페어  
세이프 컷 다이아몬드로 구성한 클래식  
버터플라이 컬렉션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그라프 브랜드를 상징하는  
조롱박 세이프를 담은 다이아몬드 빠띠  
울루 림 2백43만원 커링, 1.1개컷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영롱한 웨딩 링 가격 미정 티파니.





(위부터 차례대로) 별도로 구매 가능한  
사파이어 및 그린 가넷 나비 팬던트  
3천6백32만원,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1억1천백86만원 모두 키린 파인주얼리  
울루 컷 다이아몬드를 수놓은  
쁘띠 올루 링 1백21만원,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타엔디 링  
2백13만원, 로즈 골드와 플래티늄  
소재가 만나 등근 직사각형을 이루고  
그 위에 다이아몬드를 담은 타엔디  
더블 링 3백90만원, 로즈 골드에  
울루 세이브 더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울루 링 1백21만원 모두 키린.

사파이어와 에메랄드, 그린 가넷으로  
나비를 화려하게 구현하고 다이아몬드로  
대나무를 표현한 베누 이어링 6천76만원  
키린 파인주얼리. 조롱박 형태를 이루는  
울루 다이아몬드가 우아한 로즈 골드  
쁘띠 올루 링 3백73만원, 오픈워크  
구조의 다이아몬드 올루 링  
8백79만원 모두 키린.

헤어 박규빈  
메이크업 정지은  
모델 페트라  
어시스턴트 김보민  
에디터 김하얀



그라프 02-2150-2320  
다미아니 02-515-1924  
돌체엔가비나 02-3442-6888  
디올 파인주얼리 02-3280-0104  
미우미우 02-541-7443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부쉐론 02-3277-0148  
불가리 02-6105-2120  
브레이게 02-6905-3571  
블랑팡 02-3479-1833  
사설 화인 주얼리 080-805-9628  
설립느 1577-8841  
소유 브라이덜 02-541-7077  
쇼메 1670-1180  
소피드 02-2118-6085  
에르메스 02-542-6622  
키린 02-6905-3453  
타사기 02-3461-5558  
토즈 02-3438-6008  
티파니 1670-1837  
포멜라토 0030-8321-0441  
프레드 02-514-3721  
파이체 1668-1874  
IWC 1877-4315



# Summer Breeze

무더위에 지친 기분을 잠시나마 잊게 하는 청량한 여름 향수. PHOTOGRAPHED BY YOON JI YOUNG





## SOFT PINK

디올 뷰티 NEW 디올  
포에버 블러쉬 소프트  
필터 #05 릴리 필터를  
씌운 듯 파우더리한  
미무리감을 선사한다.  
소프트한 핑크 컬러.  
11ml 7만2천원대.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신정임

## Editor's Pick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줄 제품부터 생기를 더하는 색조,  
푸릇한 여름 정취를 담은 향까지, 지금 이 계절에 필요한 뷰티  
에센셜 리스트. PHOTOGRAPHED BY YOON JI YOUNG

## EVER FRESH

오피신 유니버설 블루 오  
트리플 그로세이 푸릇하고  
새콤한 토마토 향이 코끝을  
스치자마자 산뜻한  
베르가모트 향이  
뒤따라온다. 물이 우거진  
정원이 연상되어 기분  
전환용으로 제격. 75ml  
25만원대.  
문의 02-3438-6012  
\_by 에디터 김하안



## SCALP CARE

아베다 NEW 미라큘러스 오일 하이-샤인 컨센트레이트  
까멜리나 오일 밝호 성분과 25가지 꽃과 식물 애센스를 담아  
머릿결을 비단같이 윤기 나게 가꿔주는 것은 물론, 건강하게  
관리해준다. 50ml 6만2천원대. 문의 02-3440-2905  
\_by 에디터 신정임



AHC 마스터즈 하이퍼 밀드  
리페어 선스틱 순한 성분에 툰업  
효과까지 겸비한 스틱형 선크림 22g  
3만1천원. 문의 080-332-0855  
\_by 에디터 성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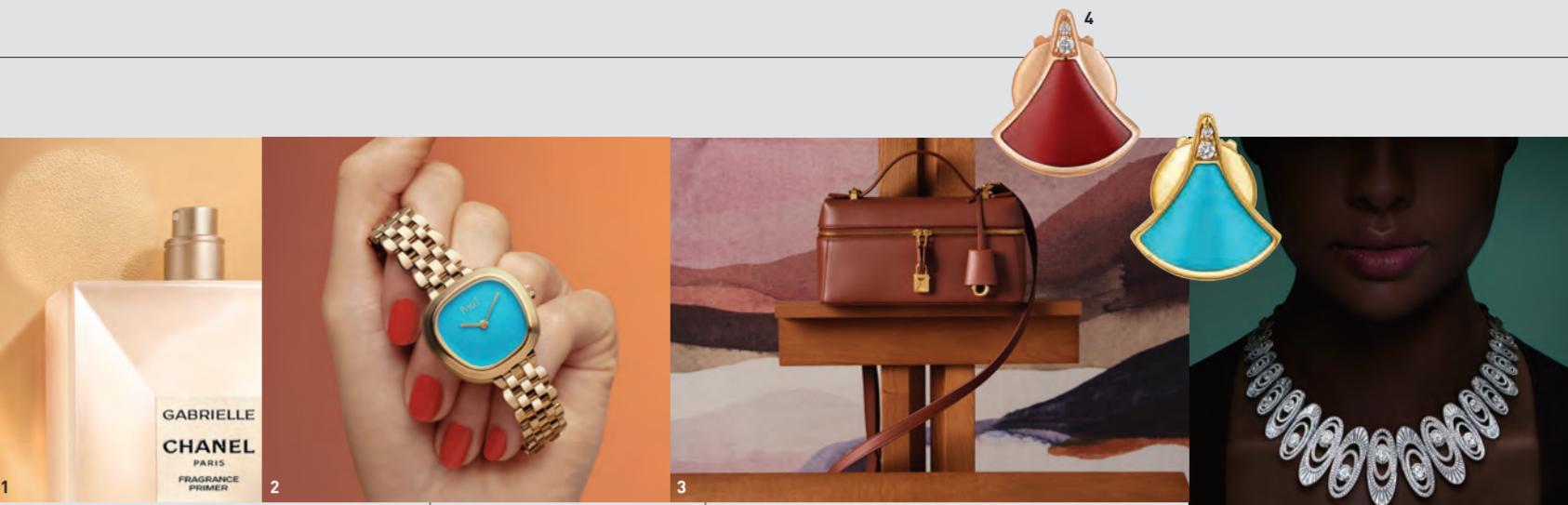
아우구스티누스 바더 더 선크림 SPF 50 마이크로  
조류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에 탄력을 부여하며 코튼 씨  
추출물과 라즈베리 씨 오일, 부르티 오일 등의 성분으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30ml 19만7천원대.  
문의 02-6904-0589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러쉬 수퍼 밀크 헤어 또는 몸에 사용 가능한 멀티 글리터  
미스트 제품. 은은한 반짝임과 리트시 큐베바 오일,  
비닐라 앰보린트를 조합해 달콤한 향을 선사한다. 260g  
5만원대. 문의 1644-2357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 FRESH CODE

템버린즈 퍼퓸 데오드란트 블루 히노키 뭉침이나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밀리며 오랜 시간 안정적인 발향을 유지함  
냄새를 가려준다. 35g 4만8천5백원.  
문의 1644-1246 \_by 에디터 성정민

타이니원더 하이퍼 블루 립 틴트  
02 어썸 하트 한 손에 쑥 들어오는  
귀여운 미니 사이즈 립 틴트. 무슨  
제형이라 입술에 가볍게 밀착되고  
밝은 레드 컬러로 생기를 더한다.  
3.6g 1만2천8백원.  
문의 070-4118-0602  
\_by 에디터 신정임



## Showroom

1 샤넬 뷰티 가브리엘 샤넬 프래그ランス 프라이머  
샤넬 뷰티에서 가브리엘 샤넬 프래그ランス 프라이머  
를 출시했다. 향수를 뿌리기 전 단계에 사용해 진향  
을 풍성하게 살려주는 입자 고운 미스트 제품이다.  
단독으로 보디 미스트로도 활용할 수 있어 보습감  
과 은은한 플로랄 향기를 선사한다. 문의 080-  
805-9638

2 피아제 식스티 터콰이즈 공개 피아제의 위치 컬  
렉션 시스테미에서 2025 리미티드 에디션 터콰이즈  
다이얼 버전을 새롭게 선보였다. 1970년대 앤디 워  
홀이 사랑한 레트로 TV 스크린 형태의 시계 디자인  
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으며 아이코닉한 터콰이즈  
컬러 다이얼이 특징이다. 문의 1668-1874

3 로로피아나 엑스트라 백 L23 출시 이탈리안 하  
이엔드 패션 브랜드 로로피아나에서 엑스트라 백  
L23을 출시했다. 로로피아나의 아이코닉한 참 징식  
이 돋보이며 핸드백 또는 크로스 보디 백으로 연출  
할 수 있다.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담아낸 것이  
특징. 문의 02-6200-7799

4 불가리 디바스 드림 컬렉션 하이 주얼리 브랜드  
불가리에서 디바스 드림 컬렉션을 공개했다. 과거  
귀족들의 공간이었던 카라칼라 대욕장의 정교한 모  
자이크 패턴을 모티브로 삼아 부채꼴로 제작했다.  
로즈 골드 소재를 적용했으며 멀티오브렐, 커닐리언  
등의 점스톤을 담은 47가지 모델로 선보였다. 싱글  
스터드 이어링 제품으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제품들과 착용해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6105-2120

5 그라프 하이 주얼리 라인 '1963' 출시 그라프가  
탄생한 1960년대를 기념해 하이 주얼리 세트  
'1963'을 공개했다. 총 7천7백90개의 오벌·버켓·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라운드 파베에  
메랄드가 은밀하게 더해져 있다. 네크리스, 이어링,  
브레이슬릿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150-  
2320



6 랑방 레몬 아르페쥬링 애시메트릭 슬리브리스  
탑 프랑스 럭셔리 패션 하우스 랑방에서 레몬 아르  
페쥬링 애시메트릭 슬리브리스 탑을 출시했다. 산뜻  
한 레몬 컬러가 특징이며, 어깨 라인의 아르페쥬 링  
디테일이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의 02-3438-6186

7 다미아나 벨 에포크 릴 풀 파베 링 이탈리아 하  
이 주얼리 브랜드 다미아나에서 벨 에포크 릴 컬렉  
션에 새로운 풀 파베 링을 출시했다. 화이트 골드 보  
디를 따라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해 빛  
을 입체적으로 반사하는 구조적 디자인을 적용했  
다. 문의 02-515-1924

8 샤넬 워치 J12 블루 샤넬 워치에서 J12 출시 25  
주년을 맞아 블루 매트 세라믹 컬러 모델인 J12 블  
루를 공개했다. 블랙에 기까우면서도 블루에도 기까  
운 모묘한 컬러의 세라믹으로 제작했으며 J12 블루  
칼리버 워치, J12 블루 다이아몬드 뚜르비옹 워치,  
J12 블루 X-RAY 워치 등 총 9가지 모델로 출시했  
다. 문의 080-805-9628

9 시몬스 N32 모션베드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  
에서 프리미엄 모션베드 신제품 N32 모션베드를 출  
시했다. N32 모션베드는 5개의 모션(플랫, 헤드 틸  
팅, 베이스 상단, 베이스 하단, 무중력)으로 구성돼  
사용자의 자세와 수면 환경에 따라 매트리스의 각  
도를 세밀하게 조절해준다. 또 블루투스를 통해 스  
마트폰으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문의 1899-  
8182

10 리버티 뷰티 향수의 예술품 컬렉션 1백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명품 큐레이션 백화점  
리버티 런던에서 탄생한 리버티 뷰티에서 향수의 예  
술품(Work of Arts)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향수  
보틀 세라믹의 플로럴 패턴과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리버티의 유서 깊은 아트워크 패키징 8종으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080-363-5454



11 오메가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오메가에서 씨마  
스터 아쿠아 테라를 제안한다. 스위스 계측학연방  
학회(METAS)에서 실시한 업계 최고 수준의 테스트  
를 통과한 오메가 코-에시알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  
리버 8750을 장착했으며 4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문의 02-6905-3301

12 키린 올루 미니 솔리태어 컬  
렉션 키린에서 올루 미니 솔리  
태어 컬렉션을 선보였다. 중  
국의 전통적인 조魯박에서  
영감받은 올루 실루엣이  
특징이며 네크리스와 후  
프 이어링, 코드 브레이  
슬릿 등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됐다. 문의 02-6905-  
3435





# CHANEL

HIGH JEWELRY

COLLECTION N°5

N°5 네크리스.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55.55캐럿 에메랄드 컷 DFL Type IIa 다이아몬드.